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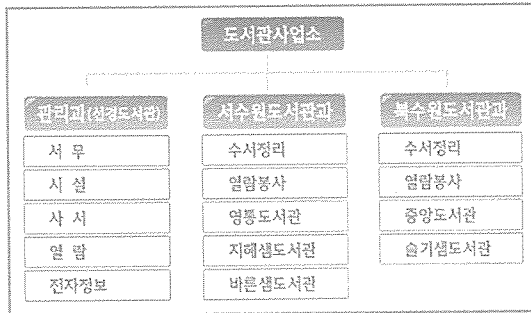
도서관탐방
슬기샘도서관

"어린이의 마음을 읽는 도서관"

그래서 "편안하고 행복한 도서관"

슬기샘도서관의 설립 배경

수원시 인구는 107만 정도이며 소속도서관 8개관(선경도서관, 영통도서관, 중앙도서관,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슬기샘도서관, 지혜샘도서관, 바른샘도서관)과 경기도교육청소속도서관 1개관(경기도립중앙도서관)등 모두 9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소속도서관 8개관은 수원시도서관사업소 1국 3과, 13담당(계단위, 1담당이 1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슬기샘도서관은 사업소의 북수원도서관과 소속팀으로 되어 있다.



〈도서관사업소 조직도〉

수원시는 현재 1관당 1인당 봉사대상인구수가 10만이 훨씬 넘고 있어 시는 도서관 만들기에 주력해오고 있다.



〈수원시 지도〉

그 노력의 결과 현재 수원시에는 4개구에 일반도서관 5개관(팔달2, 장안1, 권선1, 영통1)이 운영되고 있고, 어린이도서관은 팔달구

를 제외한 3개구에 각각 지혜샘도서관(권선구), 바른샘도서관(영통구), 슬기샘도서관(장안구)이 운영되고 있다.

슬기샘도서관(지혜샘, 바른샘 포함) 개관을 위한 계획수립이나 설계부분은 이미 2004년 이전부터, 수서 부분은 2005년 1월부터 선경도서관 사서계에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어린이도서관개관준비 T/F팀이 가동된 것은 2005년 5월부터였으며, 팀장 포함 11명이 개관 준비를 해왔다. 도서관 개관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을때 T/F팀은 해체가 되고 어린이도서관으로 발령난 직원(3명 : 행정 1명, 사서 1명, 시설 1명)이 마무리 작업을 함으로써 2005년 11월 21일 개관하게 되었다.

슬기샘도서관을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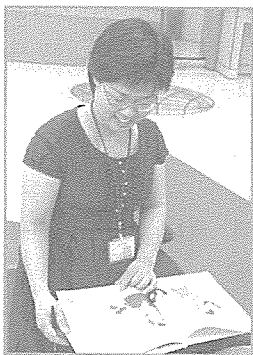
〈도서관 전경〉

직접 방문해보니 슬기샘도서관은 공원 내에 위치한다네다가 버스정류장도 도서관 바로 앞에 있어 입지가 매우 좋았다. 게다가 바로 옆에는 미술관이, 길 건너에는 체육센터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이 자리잡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오가며 쉬어갈 수 있는 적합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도서관 입구에 들어서기 전 도서관 정원을 둘러보았는데, 머릿돌이 눈에 띄었다. 머릿돌에는 “어린이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지식정보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라는 뜻깊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글귀를 마음에 새기고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본 개요

슬기샘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연면적 777평으로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도서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8월 현재 장서는 34,346권이며, 이 중 어린이도서 28,200권, 중학생도서가 4,257권, 일반도서가 579권, 참고도서가 630권, 비도서가 581점, 점자도서가 99권이다. 개관 이래로 2006년 8월 현재 총 244,419명이 이용을 했으며, 2006년에는 1일 평균 1,2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었다. 1일 평균 이용도서수는 5,500여권 정도로 매우 많았다.



〈이명옥 사서〉

도서관을 둘러보면서 장서수는 꽤 많은데도 서가가 많이 비워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 평균 이용도서수를 보니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도서관이 얼마나 활발하게 숨을 쉬고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도서관은 현재 정규직 5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실별 특징

응달샘 : 유아자료실

도서관 입구에는 응달샘이라는 유아자료실이 위치해 있었다. 응달샘이라는 이름은 송글송글 맑은 물이 솟아나는 응달샘처럼 책에 대한 친근함이 송글송글 솟아나는 공



〈응달샘 풍경〉

간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도서관 직원들이 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방학기간이자 휴가기간인 탓도 있었겠지만 응달샘실의 문을 연 순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 깜짝 놀랐다. 맨발로 걸어다니는 아이, 유모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엄마와 아빠의 정겨운 모습에 흠뻑 마음이 빨려들었다. ‘이런 곳에서 뛰놀고 책을 읽는 아이들은 밝고 명랑하게 자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이야기듣는 아이들〉

마침 우리팀이 방문한 날에 할머니 자원봉사자께서 어린이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책의 내용과 접목한 율동도 가르쳐주고 있었다.

응달샘에는 아기둥지라는 1세~3세 유아들이 마음껏 책을 보면서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주로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두레샘 : 초등학생자료실

1층 측면의 내부 계단을 오르니 2층 두레샘 초등학생자료실이 있었다.

두레샘은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릴 정도의 지식이 어린이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뜻이라



〈두레샘 풍경〉

고 한다. 두레샘실은 초등학교 자료실로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도서·정기간행물, 디지털자료 등을 비치하고 있었다. 독서토론실도 마련되어 있어 초등학교생들이 다양한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어울림터라는 문화공간에는 무대, 첨단 음향시설등이 갖추어져 있어 연극, 강연, 영화 상영 등 다양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

‘달나라별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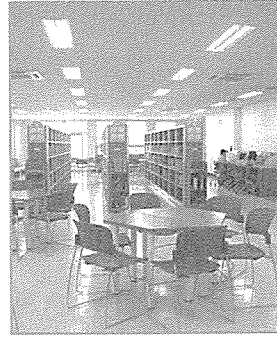


〈‘달나라별나라’ 관람 어린이들〉

3층 ‘달나라별나라’에는 천문우주 체험 과학탐구관이 있었다. 우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꾸며놓았다. 별자리, 우주개발의 역사와 미래, 천체망원경의 원리, 태양계행성, 우주탐사선 스페이스 쉽, 달의 모양변화 등을 볼 수 있는 코너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우주탐사선 스페이스 쉽은 이명옥 사서의 안내에 따라 직접 타보기도 했는데 실제 우주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 매우 흥미롭고 짜릿했다.

중학생자료실

3층에는 중학생자료실이 있었다. 중학생용 도서·정기간행물, 디지털자료, 영상자료 등이 마련되어있었다. 3층



〈중학생 자료실〉

중학생자료실은 자료실도 자료실이지만 경관이 무척이나 좋았다. 그곳 창문을 통해 바라본 만석공원의 호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그림을 옮겨다놓은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책을 읽는 그 기분은 상상만해도 흥분됐다.

도서관의 자랑

도서관별 특성화

수원시 도서관 8개관은 각각 자료가 특성화되어 있었다. 선경도서관은 성곽관련자료, 서수원도서관은 식물관련자료, 영통도서관은 IT관련자료, 북수원도서관은 미술관련자료, 중앙도서관은 노인복지관련자료, 슬기샘도서관은 천문우주관련자료, 지혜샘도서관은 환경관련자료, 바른샘도서관은 멀티미디어관련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소장하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달나라별나라” 체험학습관도 도서관 자료 특성화 정책에 따라 슬기샘도서관에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이다. 도서를 구입할 때에도 천문우주관련자료를 좀 더 많이 구입하고 있으며 문화행사도 이와 관련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현재 슬기샘도서관의 자원봉사자는 약 50여명. 도서관 개관 전부터 모집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활동을 해오고 있다. 서가정리팀, 문화행사운영지원팀, 주말도우미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행사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자원봉사제도를 전문분야별 연령별로 좀 더 다양화하고 차별화 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

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수료 후 1개 강좌 당 봉사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해 활동하게 하고 지도강사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미 2006년 상반기 수료자 중 1개의 봉사팀이 구성되어 9월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중에 있으며 올 연말에는 자원봉사자 발대식도 가질려고 한다.

기타 프로그램

도서관을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 도서관에서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주는 '도서관에 처음왔어요'라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매주 목, 금에 실시되며 1회당 4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아기둥지 극장은 유아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1층 웅달샘 내 아기둥지실에서 상영하고 있다. 8월에는 엄지공주, 꾸러기 상상여행, 뽕뽕아 놀자 등이 상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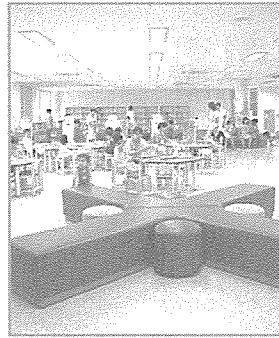
어린이 극장에서는 유아와 초등학교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어울림터에서 상영한다. 8월에는 아나스타샤, 만화위인전 '올곡과 신사임당', 타잔2,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등이 상영됐다.

그림책슬라이드는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11시에 어울림터에서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상영하고 있는데 슬라이드상영은 수원동화읽는어른모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독서동아리 활동은 매주 토요일에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독서토론실에서 진행되는데 책을 읽고 난 후 그 느낌을 서로 이야기하고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다.

그림책여행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아기둥지에서 7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동화구연교실**은 매주 화, 목, 금에 아기둥지에서 5세에서 7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도서관



〈자료실 풍경〉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슬기샘도서관은 개관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도서관이지만 자원봉사자, 문화활동, 도서관 이용률 등에서 모두 활발함을 볼 수 있었다.

도서관의 활발한 움직임은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력도 컸겠지만 도서관문화에 목말라하던 시민들에게 적합한 때와 장소에 도서관이 제공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현재 활발한 이용률에 비해 도서관 직원의 수는 적은 편이지만 직원들은 시민들이 더 좋은 도서관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무던히 애쓰고 있었다.

앞으로 슬기샘도서관은 더욱더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또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행복한 도서관 만들기"에 주력해 어린이도서관의 모범사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명옥 사서는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문 지식이나 열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엄마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말로 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이 맘껏 숨쉬고 뛰놀고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곳, 바로 어린이도서관! 수월시와 같은 사례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리길 바란다. 

(글 : 심효정, 사진 : 최인경)

10월에는 부산뇌병변복지관 오투기도서관 (잠지도서관 13호점)을 찾아갑니다.